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“책더미속 37년 보람에 산다” - 국내 최대장서가 신영길씨 / 이시영선생 권고로 시작...4만7천권이 나 돼 / 「북간도는 우리땅」 표시된 교과서 등 회귀본도 50여점 / 고서점가에 소문난 수집가...독서량도 국내 최고수준(스포츠서울 11월18일 정인학 기자)
- 10번째 시집 펴낸 「文彩」 동인 3인 - 더 열심히 쓰려고 80년 결성 / 공동수필집도 곧 발간(중앙경제신문 11월20일 李京宣 기자)
- “신앙시집 시리즈 나왔다” - 기독교적 인간에 담은 「믿음의 시선」 1차분 / 종교서적, 운동주의 「죽는 날」 등 12권 발간(스포츠서울 11월20일)
- 노벨문학상 출판사고 ‘해프닝’ - 역자, 이름 盜用당하자 해명광고 / 초고속 출간후 상표 등록...기득권 주장 / 출판사들간의 치열한 선발 경쟁서 비롯(중앙경제신문 11월20일 金成熙 기자)
- “국내 아동도서 유통시장에 선 보인다” - 저작권 첫 수출 / 금성출판사, 벨기에 유명업체와 판권 계약 / 佛·伊 등 4개국어로 번역판매(중앙일보 11월21일 金憲益 기자)
- “세 여류시인 동인지10집 출간 - 慎達子·柳岸津·이향아씨 / 한얼고 경전 「한얼말씀」 발간(경향신문 11월21일)
- 눈길 끈 「북한문학작품선」 - 계간 「실천문학」 겨울호 특집 / 시 趙基天의 「백두산」 등 7편 / 소설 李箕永의 「개벽」 등 2편(서울경제신문 11월 22일 姜升遠 기자)
- 계간지 르네상스 - “신인발굴 돋보인다” / 6월항쟁 이후 문예지 10여종 복간·장간 / ‘변혁 흐름 속 문화적 구심역할’ 자임 / 노동문학·노동자출신 문인 본격 소개(한겨레신문 11월22일 조선희 기자)
- 소설가 한승원씨 신작...“우리들의 돌탑” 펴내 / 「그대에게 가는 길」 나와...고 박정만 시인 유고집 / 다

- 섯시인 시집 출간...「문학과지성시인선」 / 「어린이는 모두 시인이다」...이오덕씨, 동시 쓰는 법 발간(한겨레신문 11월22일)
- “자신의 어린 시절 소설화” - 金周榮·金源一 / 미군정 6·25직후 삶 객관적 서술 / 궁핍했던 한 세대의 자화상 그려 / 소설의 재미...「문학적인 진실」 보여줘(중앙경제신문 11월23일 朴海鉉 기자)
- 계간문학지 활동 활발 - 詩 전문지 「현대시세계」 창간·「세계의 문학」 50호 발간 / 高銀의 시, 소련현대시 게재...「현대시세계」 / 「30년대 문학연구」 특집기획...「세계의 문학」(중앙경제신문 11월23일)
- 「한국근대잡지 80년전」 - 「소년」지 등 총 2천200여종 전시 / 내달 1일까지...발표사 한눈에(한국경제신문 11월23일)
- “...기차 돌림 책제목 홍수” - 「홀로서기」 등 베스트셀러로 / 4주 제목의 시집만 13종이나(한국일보 11월 23일)
- 美서 괴기소설 선풍 - 여류소설가 라이스의 「흡혈귀시리즈」 / 발간 1주새 베스트셀러로(한국일보 11월23일 李相石 기자)
- 한국문학 해외진출 활기 - 금성출판사...세계명작 72만권 첫 저작권 수출 / 문예진흥원...「土地」 불역·中語 시집도 / 동서문학사...단편집 영역 83개국 배포 / 동구문예지도 ‘한국분’(조선일보 11월24일 金亨基 기자)
- 장편 역사소설 「고난의 년대」 집필 / 중국연변 한인작가 李根全씨 / ‘소수민족’ 중 조선족 문필활동 가장 활발 / 금기 완화...「개혁」 즐겨 다뤄(조선일보 11월24일)
- “「고난의 년대」는 韓人の 항일투쟁사” - 중국작가협 연변분회주석 교포소설가 李根全씨 / 동포문학 어느 민족보다 활발 / 한글잡지 많고 작가 400여명(중앙경제신문 11월24일 朴海鉉 기자)
- “5공출판탄압 지금도 계속” - 출판계 ‘진상 규명·사과·보상’ 요구 / ‘무더기 잡지 폐간 부당’ 청문회서 입증 / 현대판 ‘분서갱유’...문화적 수치 씻어야(한겨레신문 11월24일 신연숙 기자)
- “계급문학 시대 지나 개혁문학 주류” - 50년만에 고국땅 밟은 연변동포작가 이근전씨(한겨레신문 11월24일 조선희 기자)
- “군부독재 비참한 말로 교훈” -

- 「영국혁명의 수평파운동」 펴낸 林熙完교수 / 17세기 영국 한국상황 유사 / 현실과 거리 있었지만 역사 발전에 기여(한국일보 11월24일 金龍善 기자)
- 시집 「불법체류자」 펴낸 尹凡牟씨 - “多民族사회서 코메리칸의 위상 생각”(서울신문 11월24일 任英淑 기자)
- 金成植교수 유고시집 「시가 없는 산하」 - 암울했던 나날 ‘선비의 눈’으로 비평 / 작년부터 발간된 추모전집의 제6권 / 300여편 중 대부분 처음 공개되는 역작 / 20대에 쓴 「初雪」부터 연대순으로 편집(서울신문 11월25일 朴康文 기자)
- “新서민” 일상과 생각 詩化 - 金光圭씨 네번째 시집 「좀팽이처럼」 출간 / 시류 무시...분명한 어조 특색 / 도시월급장이 심정 등 그려 / “平常心의 맑은 정신 명료하게 펼쳐”(한국경제신문 11월25일 朴聖姬 기자)
- “번역은 기능 아닌 창작” - 출판을 현황과 문제점 분석 / 고로 낮고 ‘적당히 하는 것’으로 인식돼 / 연구업적으로 인정돼야 양질의 역서 나와(동아일보 11월25일 宋煥彦 기자)
- 연구서 늘어 ‘양보다 질의 경쟁’ - 제29회 「한국출판문화상」 접수 마감 / 총317종 응모...문학 사회과학 / 대형기획물은 줄어, 저작상경향 경향(한국일보 11월26일 金龍善 기자)
- “그림도 즐기고 역사공부도 하고” - 한국사, 만화로 만든다 / 계몽사·웅진출판사, 89년 겨냥 본격화 / 사진·지도 등 삽입 학습효과 기대...웅진 / 사실성 부각 위해 전문가 초빙도...계몽사(중앙경제신문 11월 26일 金成熙 기자)
- “잘못된 역사관 바로잡고 싶었죠” - 대하소설 「朝鮮王朝 500년」 48권 펴낸 辛奉承씨 / 「한시대의 흐름 총정리」 자부심 / 사료수집 10년, 5년 걸려 집필(경향신문 11월26일 安健巒 기자)
- 작품 통해 권력에 저항 - 「잠자는 불」 펴낸 최성각씨 / 폭력·인권·공해·노인문제에 관심 / 역경은 인간을 옹골차게 만든다는 사실 자각(동아일보 11월 26일 高美錫 기자)
- “미술출판 활기 넘친다” - 화집·전문서적 출간 러시 / 우리 양화사 작품 정리분석 「한국양화 1백년」

- 나와 / 원로·중진급보다 신인들이 활발 / 전문출판사 후원...일반화 단계로(일간스포츠 11월28일 李盛夫 기자)
- “출판대학” 내년에 문연다 - 대한출판문화협, 상설교육기관으로 설치 / 출판편집 고급인력 양성배출 / 종합·전문분 구분...편집대행·출판사업도 전개(중앙일보 11월28일 李憲益 기자)
- “그 아픔과 궁핍시대 함께 이해했으면” - 김주영씨 성장소설 「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」 / 격변기 헤쳐온 기성세대 전형적 체험 담아 / 해방에서 6·25사이 시골아이의 세상읽기 / 작가에게 ‘빛지워진’ 정서적 뿌리 드러내(한겨레신문 11월29일 조선희 기자)
- “문화적 실천 방법과 지향” - 계간 「문학과 사회」 겨울호 특집 / 지난 시대의 정치·경제·사회 모순 / 민족적 차원서 ‘오늘의 현실’ 진단(서울경제신문 11월29일 姜升遠 기자)
- 통일문제 저술 출판붐 - 40여종 시판...하반기만 16종 / 전쟁배격...중립화연구 많아 / 「고려공통체」 「민족통일투쟁과 조선혁명」 등 판금 재출판(한국일보 11월29일 金龍善 기자)
- “북한문학작품이 마구 들어온다” - 「실천문학」·한마당서 원본 그대로 소개 / 김일성 우상화한 「백두산」 등 줄이어 / 레닌의 문학론 등 혁명문학 관련서적 함께 / “이념·감정 떠나 합리적 검증 통해 걸러내야”(중앙일보 11월30일 李京哲 기자)
- 다작시인 金光圭·寡作시인 金明仁 - 9년만에 나란히 시집 출간 / 「좀팽이처럼」 「머나먼 곳 스와니」 각각 펴내 / 도시민 일상생활 간결묘사...金光圭 / 현대사 속 시인의 비극 다뤄...金明仁(중앙경제신문 11월30일)
- 계간지, 일제히 기금 신청 - 89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지 선정 임박 / 시국변화 타고 지원기대 부풀어 / 종래 일부만 수혜...모호한 규정 논란 예상 / “선별지원고료 균형 깬다”...전면 확대 요구(중앙경제신문 11월30일 朴海鉉 기자)
- 「土地」 1부 佛譯완료 - 벨풍社서 90년 출간 / 최성각씨 창작집...「잠자는 불」 펴내 / 李文烈씨 장편소설...「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」 나와(중앙경제신문 11월30일)

- “절대권력” 금기 깨고 軍소재로 소설 쓴다 - 金철씨 최근 「군대와 한국소설」 비평 발표 / 軍객관화 새로운 부각 가능성 제시(매일경제신문 11월30일 威承鎬 기자)
- “씨울의 소리” 8년만에 복간 - 새 편집 위원장 金容駿씨 / “비폭력평화·사회정의의 구현 앞장” / 「반핵통일」 특집...「군사문화청산」 논문 등 실어(조선일보 12월 2일 金泰翼 기자)
- “우리도 세상 알아야” 감격한 동심 - 어린이교육연구회에서 글모음 제4권 발간 / “티없이 솔직” 사회상을 날카롭게 비판 / 남북화해 방안으로 체육교류 제안도(서울신문 12월2일 朴康文 기자)
- 한겨레에 6권 출간 화제 - 원로·중견시인들 시선집 / 제1권 具常씨의 이야기시집 비롯 / 자유중국 반체제 시인 陳千武씨 등 金光林·朴在森·權逸松·吳容秀씨도(서울경제신문 12월2일 姜升遠 기자)
- 출판가 소식 - 어린이 위한 계몽문화센터...강남 역삼동에 각종 문화시설 / 롯데월드에 「세종문고」 개장...350평 규모 아동도서 등 5개 매장(서울경제신문 12월2일)
- 우수 외국소설 잇달아 번역 출간 - 정선된 번역으로 “또 하나의 한글 문학” / 독일분단 그린 「나뉘어진 하늘」 전채도 / 국내 소설에 대한 독자 식상 원인(중앙경제신문 12월2일 朴海鉉 기자)
- 푸른나무이야기 모임 - 국내 첫 청소년 무크지 펴내 화제 / 150여 중고생이 회원...자율적 언론모임체 자부(중앙경제신문 12월2일 金成熙 기자)
- “한서린 인생 온몸으로 엮었어요” - 빨치산 시인 김영씨 / 양심으로 평생 쓴 작품 모아 「깃발없이 가자」 출간 / 당시 상황은 민족적 비극...자유의 몸 되고파(스포츠서울 12월2일 박찬기 기자)